

백두의 천출명장들을 모시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90년

어언 90년이 흘렀다. 이 나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당시 《반일인민유격대》)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지금도 쟁쟁히 들려오는 것만 같다. 아름다운 이갈나무로 둘러싸인 안도현 소사하 토기점골의 등판에서 서로서로 열사안으며 민족이 낳은 청년장군을 우리리 목청껏 만세를 웨치고웨치던 유격대원들의 뜨거운 환호성이. 그날의 대오는 천이었던가 만이었던가. 부대는 크지 않았지만 그 무장대오가 자라고자라나 세계적인 강군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사연깊은 두자루의 권총을 밀친 삼아 첫 무장대오가 틀어잡은 보훈이 오늘날 지구상 그 어디

에 있는 침략세력도 단호히 요정벌수 있는 신형대륙간도미싸일 《화성포-17》형으로 발전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90년력사. 자욱자욱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 새겨진 이 나날과 더불어 세계에 우뚝 솟아오른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래서 이해의 4월 25일은 류달리도 경사스럽고 더욱더 환희로운 것 아니겠는가. 이 땅 그 어디에나 넘쳐나는 격정과 환희를 가슴부듯이 안아보며 온 나라 인민들은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 고있다.

두자루의 권총을 밀친으로 삼아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신분은 절세의 예극자 김일성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때 일을 회억하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1932년 4월 25일 아침 우리는 토기점골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식을 가지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쓰시었다. 《이갈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등판의 공지에 새 군복을 떨쳐입고 무기를 휴대한 대원들이 구분대 단위로 정렬하였고 그 공지의 한쪽편두리에 소사하와 흥룡촌일대의 인민들이 모여서서 슬렁대고있었다. ... 내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자 대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이렇게 첫 고교성을 터친 조선의 혁명적무장력은 조국해방의 강력한 전위대로 자라났으며 마침내 발돋움까지 무장한 일제를 때려 해방의 새봄을 안아왔다. 그때부터 공화국인민들은 존엄 높은 인민으로 세계앞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 존엄은 뒷걸음치고 하여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잃기는 쉬워도 찾기는 힘들고 지키기는 더욱 어려운데 바로 존엄이다. 존엄을 지키자면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막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남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역점 힘일. 하기에 어버이수령님 해방후 강

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 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로,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자체의 힘으로 정규적 혁명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주체37(1948)년 2월 8일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었다. 또한 헤아릴수 없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 자립적인 국방공업 창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군사적업으로 공화국인민은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미국의 새 전진도발책동이 로골화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평화적공존》을 부르짖던 엄축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데 대한 탁월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군력강화에 큰힘을 넣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군대를 세계적인 강군으로, 공화국을 자위의 핵보유국으로 되게 하여주시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존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지켜내시였을뿐 아니라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었다. ...

힘이 약하면 망국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력사이기만 이 아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 설사 문힐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존엄이라는 강한 의지를 지니시고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 실현에 결연히 나서신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이께서는 그 길에서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셔도 그 어떤 위협이 뒤따르다 해도

도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 땅에서는 주체란들이 만리창공으로 솟구쳐올랐으며 오늘날에는 이 행성에서 처음 보는 신형대륙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이 태어나게 되었다. 지구를 뜨겁게 달구며 세계에 솟구쳐오르던 조선의 힘 《화성포-17》형은 공화국의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이다.

사랑하는 인민에게 세상에 부럽없는 최상의 문명, 최상의 행복을 안겨주는것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서 온 그 은정속에 황홀함과 신비경을 자아내는 사회주의 변화가, 사회주의선경들이 이 땅에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위민헌신의 령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탁월한 령도따라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더 좋은 래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나라! 높아가는 인민의 웃음속에 강국의 존엄은 더욱 빛난다. 지금 세계의 진보적인류의 마음과 마음은 전세계를 《조선총격》, 《조선관》으로 들끓게 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열화같은 축원의 인사와 경의를 드리고있다. * * *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에 온 나라 인민들은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리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은 심장으로 터친다. 주체조선의 힘이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김정은장군 만세! 위대한 사회주의조선 만세! 본사기자 유금주

강국의 존엄과 최강의 군력

2022년 3월 24일 온 행성이 진감하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불줄기를 내뿜으며 거대한 비행체가 창공으로 힘차게 솟구쳐오른것이다. 《시험발사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할것.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쓰라! 김정은 2022. 3. 23》 담력과 기백이 넘치는 위대한 령장의 천필명령과 더불어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른 신형대륙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공화국의 위대한 존엄을 만방에 더욱 힘있게 파시하였다.

세계가 범석 뚫어변졌다. 《북조선 대륙간도미싸일(화성포-17)형시험발사 완전성공》, 《김정은총비서 《또 한번의 기적적승리》 대만족》,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미싸일》, 《북 대륙간도미싸일개발기술 단기간에 완성》...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초엽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40여년간이나 비참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조선민족이었다. 울밀의 봉선화처럼 시들어가던 그 인민에게, 해빛이 그리워 뭉뚱치던 조선민족에게 참다운 자주적존엄을 찾아주시려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이렇게 첫 고교성을 터친 조선의 혁명적무장력은 조국해방의 강력한 전위대로 자라났으며 마침내 발돋움까지 무장한 일제를 때려 해방의 새봄을 안아왔다. 그때부터 공화국인민들은 존엄 높은 인민으로 세계앞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 존엄은 뒷걸음치고 하여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잃기는 쉬워도 찾기는 힘들고 지키기는 더욱 어려운데 바로 존엄이다. 존엄을 지키자면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막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남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역점 힘일. 하기에 어버이수령님 해방후 강

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 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로,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자체의 힘으로 정규적 혁명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주체37(1948)년 2월 8일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었다. 또한 헤아릴수 없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 자립적인 국방공업 창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군사적업으로 공화국인민은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미국의 새 전진도발책동이 로골화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평화적공존》을 부르짖던 엄축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데 대한 탁월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군력강화에 큰힘을 넣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군대를 세계적인 강군으로, 공화국을 자위의 핵보유국으로 되게 하여주시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존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지켜내시였을뿐 아니라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었다. ...

힘이 약하면 망국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력사이기만 이 아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 설사 문힐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존엄이라는 강한 의지를 지니시고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 실현에 결연히 나서신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이께서는 그 길에서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셔도 그 어떤 위협이 뒤따르다 해도

도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 땅에서는 주체란들이 만리창공으로 솟구쳐올랐으며 오늘날에는 이 행성에서 처음 보는 신형대륙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이 태어나게 되었다. 지구를 뜨겁게 달구며 세계에 솟구쳐오르던 조선의 힘 《화성포-17》형은 공화국의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이다.

사랑하는 인민에게 세상에 부럽없는 최상의 문명, 최상의 행복을 안겨주는것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서 온 그 은정속에 황홀함과 신비경을 자아내는 사회주의 변화가, 사회주의선경들이 이 땅에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위민헌신의 령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탁월한 령도따라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더 좋은 래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나라! 높아가는 인민의 웃음속에 강국의 존엄은 더욱 빛난다. 지금 세계의 진보적인류의 마음과 마음은 전세계를 《조선총격》, 《조선관》으로 들끓게 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열화같은 축원의 인사와 경의를 드리고있다. * * *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에 온 나라 인민들은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리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은 심장으로 터친다. 주체조선의 힘이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김정은장군 만세! 위대한 사회주의조선 만세! 본사기자 유금주



진정한 인민의 군대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의 나날 유격대원들에게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처럼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강조하곤 하시였다. 주체25(1936)년 가을이었다. 하루는 유격대에 갖 입대한 신 입대원 몇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농가곶에 있는 밭에서 강병이를 파운적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더러 주인을 찾아가 그것을 되돌려주도록 하신 다음 간곡히 이르시었다. 오늘날의 인민군으로 삼고 인민을 더욱 사랑하라. 우리가 인민을 험술히 대하면 인민이 우

리를 외면한다. 우리가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서 싸우겠는가. ... 그후 작성공포된 조선인민혁명군 잠정조례에는 본군은 인민의 생명재산을 옹호보위하며 인민들과 생사교락을 같이하면서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다고 밝혀져있다.

주체90(2001)년 8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인들이 새로 발굴한 올림픽포를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목표의 웅장한 자연미와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시며 사람이 발붙이기도 힘든 이런 곳에 도로를 낸다는것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주시며 를 그대로 볼수 있게 한것은 나라와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이런 군인들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긍지로 여기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가 되도록 몇 해 전 여름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인들이 일하는 어느 한 대상건설장을 찾으시었다. 방대한 규모에서 특색있게 건설되고있는 대상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는 그 전신인 반일인민유격대가 안도의

이러 오늘도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자면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 안내자가 되기 위한 투쟁에서 용감 기치를 들어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여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이역의 아들딸들을 보살피는 뜨거운 어버이사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이역의 동포들이 어머니조국으로부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또다시 받아안았다.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어느덧 168차, 65년세월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력사는 끊기지 않고 이어져왔다. 지난 1950년대 전후복구건설로 나라가 어려운 때였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수만금도 아끼지 않으신분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었다. 주체46(1957)년 1월말 평양에서는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내각각원회의가 열리었다. 이

날 국가예산초안을 보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일 관심하신 문제중의 하나는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였다. 그런데 나라의 재정형편이 너무 긴장하여 일군들은 그 돈을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립시외화계획에 넣으려 하였다. 이 사실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아입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당장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짓는한이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둘 일이 아니다.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립시적인 사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국가예산에 새로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고 그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숭고한 뜻을 따라 생겨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는 사업은 오늘까지 언제 한번 중단된적이 없었다. 나라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던 교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주체83(1994)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두고 하신 교시는 오늘날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계시 때와 똑같이 보내주어야 한다. ... 이렇듯 이역의 아들딸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갖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일본 각지의 조선학교들에서 2022 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전쟁전야의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적대세력의 집요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절정에 이르러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중단없이 보내주시었다. 하기에 총련의 한 책임일군은 오늘도 감격에 넘쳐 말한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갖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으며 공화국의 멋진 해외공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된 오늘에는 우리 손자가 사랑의 생명수를 젖글기처럼 받아안으며 무럭무럭 자라고있습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제일동포들은 이 사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이야말로 우리 해외동포들의 진정한 조국, 참다운 삶의 품입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동로사회의 민족교육의 화원은 아름답게 만발하고 이역의 아들딸들은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공민으로 미쁘게 자라고있는것이다. 김설영